나주혁신도시 핵심 현안 선거 후 해결 관심

인구 증가에도 병원·교육 인프라 턱없이 부족
정주여건 조성 안돼 상가 공실률 70% 넘어
열병합발전소 가동 멈춰 자원순환도시 '말 뿐'

6·13 지방선거 이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핵심 현안들이 어떻게 해결될 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혁신도시 미래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반드시 해결해야할 현안들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인구는 느는데…정주여건은=12일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나주 인구는 11만2010명으로 지난해 말(11만110명)보다 1900명이 늘었다. 올들어서도 ▲1월 11만313명 ▲2월 11만750명 ▲3월 11만1214명 ▲4월 11만1667명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라질 위험에 놓일 정도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자치단체와 사뭇 다른 상황이다.

혁신도시 활성화가 인구 증가에 한몫을 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밀집한 빛가람동 인구는 지난해 말(2만8266명), 1월(2만8517명), 3월(2만8898명), 5월(2만9217명) 등으로 증가세다. 혁신도시가 나주 전체 인구 증가를 이끄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혁신도시 활성화로 인근 남평 인구도 지난해 말 8834명에서 지난달 9981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 7일 1만명을 넘어섰다.

인구가 늘어야 도시에 활력이 넘치고 주변지역으로 생기가 확산, 성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면, 생활 여건은 따라가지 못해 불만이 많다.

당장, 부족한 의료 인프라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힌다. 한 때 1만2452명(2015년)이던 혁신도시 내 인구가 3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변변한 종합병원도 없어 지역민 불만이 터져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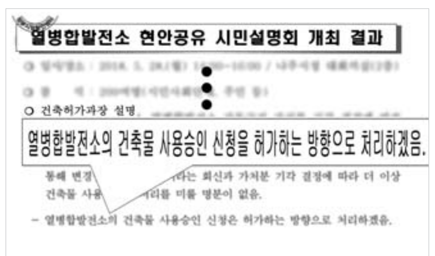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교육 경쟁력 강화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나주지역 일반고 경쟁력에 대한 불신과 혁신도시 내 고교 부족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입주민들이 요구해온 나주·광주 간 고교공동지원제는 시장 공약 사항이기도 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교육청도 교육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에서 고교공동지원제가 진행될 경우 인재 유출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나주시가 추진하겠다던 혁신도시 내 명문고 설립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덩그러니 아파트만…텅 빈 상가=나주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 내 상가 공실률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빈 상가가 많다보니 임대료를 일정 기간 받지 않고 임대를 해주는 '렌트프리'까지 등장했고 일부는 "월세나 보증금 없이 상가건물 관리비만 내면 입주할 수 있다"는 문구도 나붙었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이 조성되지 않다보니 혁신도시 내 소비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 분석이다. 혁신도시 임대료도 몇 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말 뿐인 자원순환도시=열병합발전소를 비롯,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등 빛가람혁신도시를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열병합발전소는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8월 시운전을 시작, 12월 준공해 정상


열병합발전소 현안공유 시민설명회 개최 결과

○ 건축허가과장 설명

열병합발전소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음.

가동에 들어가도록 했지만 협약과 다른 연료 반입 문제와 LNG 보일러만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지역민 민원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가동이 멈췄다.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발전소 가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나주시는 이후 시민 설명회를 통해 '더 이상 건축물 사용 승인 처리를 미룰 명분이 없다'며 '허가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사진〉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감한 이슈인 만큼 최종 결정은 시장 당선자의 의견을 들은 뒤 진행하겠다는 게 나주시 입장이다.

195억을 들여 건립했지만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을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가동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이후 어떻게 해결될 지 관심이 쏠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주정차 과태료 등 행정절차 전자화 국민 편의성 증진

인터넷진흥원-서울시 협약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김석환)은 지난 11일 서울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윤준병)와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촉진을 통한 국민 편의성 개선 및 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KISA와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종이기반의 행정처리 절차를 올해 하반기부터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디지털 송달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과태료 확정 후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고지 사항의 송달 기간을 즉시 가능하게 하는 등 단축해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고지 사항을 열람하고 결제·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종이기반의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전자화할 경우 환경보호는 물론, 약 56억원의 우편발송 비용절감이 예상되며, 주소지 변경에 의한 오배송 등 시민의 민원과 과태료 가산금,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도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두 기관은 서울시의 주요 대민 인터넷 서비스의 웹 호환성, 개방성, 보안성 향상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이용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주요 공공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시험·인증 및 IPv6 도입 컨설팅 및 이용 확산을 위한 협력을 통해 무제한인터넷 주소인 IPv6의 선도 적용을 공동 추진, 1000만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과 접근권을 강화하는 등 정보격차 양극화 해소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사학연금공단, 도서 380권 '아름다운 가게' 기증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은 지난 11일 직원들의 기증을 통해 모인 나눔도서 380여권을 아름다운가게 광주용봉점 헌책방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나눔도서는 아름다운가게 책나눔 행사에서 판매되어 주변의 소외이웃과 지역 복지단체를 지원하는 '2019 희망나누기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중흔 이사장은 "이웃과 함께 하는 도서 나눔 행사에 참여해 준 직원들께 감사하다"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학연금은 노사공동 장학금 전달, 저소득 가정 후원물품 전달 등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지원 대상 모집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 중소 게임 개발사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의 문이 열린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김영준)은 오는 18일까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산 모바일게임을 돕기 위해 지원대상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2018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지원사업'은 해외 직접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게임을 개발한 주체 즉 개발사만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개발이 완료됐거나 임박한 게임, 또는 해외 서비스를 계획 중이거나 새로운 권역에 추가적인 진출을 희망하는 게임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24여개의 모바일게임은 다음해 5월까지 한콘진으로부터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개발사에는 ▲진출 국가 현지화를 위한 번역지원 ▲글로벌 게임 운영을 위한 CS 및 커뮤니티관리 ▲게임 제작에 대한 컨설팅 지원 ▲해외 마케팅 및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될 방침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이버 전문가 양성 교육
한전KDN, 고려대와 협약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안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산업분야의 정보보호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한전KDN은 지난 7일 산업부, 고려대와 '산업부 주요산하기관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2년제 석사학위 과정으로 '오는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3기의 교육과정(매년 20여명의 교육생 선발)을 통해 사이버보안 전문가 70여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서 블록체인, 전력제어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 및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 위주의 교육 과목을 신규로 개설, 대부분의 산하기관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강의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성철 사장은 "산업부 산하기관의 보안관리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정부기관 및 전문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윈윈(win-win)하는 협력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KPS 김범년(앞줄 왼쪽에서 5번째) 사장과 본사, 사업소 품질 대표자들은 지난 11일 '2018년도 품질팀장 및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한전KPS 제공〉

한전KPS,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강화 품질팀장 회의

한전KPS(사장 김범년)는 지난 11일 김범년 사장을 비롯해 본사와 사업소 품질팀장 및 담당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품질팀장 및 담당자 회의'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품질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 품질안전실장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품질경쟁력이 밑거름입니다'를 주제로 원자력 품질이슈사항 대응 및 개선과 절차서 등록관리 ERP 교육 등 강연도 진행했다.

한전KPS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안된 현안들을 절차화하는 등 발전설비 정비업무에 있어 완벽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